

국힘 이슈몰이에 민주 '반전 카드' 고심

3% 성장론 등 '메가 서울'에 묻혀 이재명 대표 민생 현장행보 예고 민주연구원 한국형 황제세 토론회

'메가시티 서울' 논의와 '공매도 금지' 등 정부와 국민의힘이 잇따라 이슈를 선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두고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온갖 정국 이슈를 빨아들이며 결국 야권에 불리한 소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지도부 관계자는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부·여당과의 이슈 선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의제를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식 농성 후 한 달 만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작심하고 내건 '3% 경제성장론'도 여당의 연쇄 이슈몰이에 빗바꿨다는 자평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우선적 가치인 복지와 분배가 아닌 '성장'에 방점을 둔 이례적 메시지였는데 결국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며 "획기적인 '반전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의 민생 현장 행보 재개와 동시에 '민생 이슈몰이'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이 대표가 작년 8월 취임 이후 1년 4개월 만에 '민생 현장행보'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정국에 들어선 만큼 민주당이 주력해 온 지역화폐·R&D(연구·개발) 예산 복구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방지 등이 주된 과제로 언급됐다고 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으나 일주일일 민생 일정 1개 정도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단연 '민생 경제 회복'

이 메인 테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업해 마련한 이른바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주요 민생 이슈와 관련한 세대·계층별 정책 과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의 '총선 어젠다' 선점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형 황제세 도입'을 주제로 한 8일 토론회(정책위·민주연구원 공동주관)는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슈 메이킹에서 정부·여당에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의 구조적 한계"라면서 "다만 여당의 자극적인 선동에 부화뇌동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민생과 관련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채상병 사건·방송 장악·오송 참사 민주,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요건을 갖춰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넘기는 등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는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얘기하지만 "협의"는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되는 것"이라며

"의정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감사원 불법 정치감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해 보고된 지 3~4개월이 지났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울러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 "이미 지난달 24일부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있다. 법적 요건이 다 완성돼 언제든 처리된다는 의미"라며 "국회의장이 신속히 처리해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경만, 광주 대우위니아 사태 정부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7일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 대우위니아그룹 사태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대우위니아그룹의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세 곳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대우위니아그룹은 전국에 325개의 협력업체가 있으며, 총사하는 인력만 1800여 명에 달한다. 일감이 없어진 협력업체들은 인력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시와 TF를 구성해 협력업체의 대출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137개의 협력업체가 밀집돼 있는 광주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

를 표명하며,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이영 장관으로부터 '검토의 기본적인 행정 프로세스가 세 달은 걸리는데, 최대한 줄여서 지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 위니아와 협력업체에 특별보증을 확대할 것을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살펴보고, 중기부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브리핑

노형욱 "한전 그룹사 에너지공대 출연금 납부해야"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권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노형욱(전 국토교통부장관) 경제·국토교통연구소장은 7일 "한국전력 그룹사들이 '정권 눈치보기를 그만 두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올해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소장은 이날 에너지공대를 방문해 윤의준 총장, 박진호 연구부총장, 이세준 미래전략실장 등을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노 소장은 이 자리에서 "전력그룹사는 에너지공대 설립에 관한 기본협약서에 따라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고, 올해 전력그룹사가 분담해야 할 출연금은 당초보다 30%가 삭감된 398억원이다"면서 "하지만 11월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력그룹사들의 '정권 눈치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위기에 처해 있는 한전도 올해

출연금 708억원을 납부했다"며 "전력그룹사들은 출연금 축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에너지공대의 숨통을 더 이상 조이지 말고 빠른 시일내 출연금을 납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전과 그룹사가 올해 에너지공대에 분담해야 할 출연금은 당초보다 30% 줄어든 1106억원이며, 이 가운데 한전이 708억원, 전력그룹사가 398억원을 에너지공대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전력그룹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남부·남동·중부·서부·동서발전, 한전KPS, 한전KDN,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10곳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홍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민주 '총선 200석' 경제론... "국민은 고개 쳐든 오만함 싫어해"

계파 갈등 부추기는 언행 경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가 7일 총선 낙관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잊은 지 오래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상임고문은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

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 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했고, 이탄희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범야권 200석'을 언급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총선이 살얼음판인데 이거는 얼음을 깨는 듯한 발언"이라며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개 쳐든 고 오만한 것"이라고 했다.

조용천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저번에는 180석 하더니 이번에는 200석을 하겠다는 거야? 민주당 너희가 잘한 게 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총선에서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숫자로 뭘 얘기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의원 및 지지자의 언행을 두고도 경계음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및 정치인들 간의 방송이나 신문, 유튜브 방송, SNS 등을 통해서 서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상처를 주거나 당의 단합이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것 자체가 큰 틀에서의 당에 대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